



# AIIB 사업 참여 활성화 간담회 결과보고

업무보고

2021. 5.12

## □ 개요

- 배경 : 국내기관에 AIIB 사업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AIIB와 국내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도모
- 일시/장소 : '21. 5.11(화) 15:00 / ZOOM 화상회의
- 참석자
  - 기재부 : 이종화 개발금융국장 등
  - AIIB : 이동익 국장, 정재호 선임, 이동면 선임, 권우현 선임 등
  - 협회 : 정창구 정책지원센터장 등 2인
  - 기관 : 국가철도공단, KOTRA, 한국서부발전 등
  - 기업 : 현대건설, 삼성물산, 도화엔지니어링 등 약 30명
- 간담회 일정

| 시간          | 세부일정   |
|-------------|--|
| 15:00-15:15 | <b>환영사(개회사)</b><br>- 기재부 개발금융국장, 개회사(AIIB, 수은)   |
| 15:15-16:20 | <b>기관별 발표</b><br>- (AIIB) 기관 소개, 중점 투자분야 전략, AIIB 지원사업 참여방안 등 (25분)<br>- (해외건설협회) 우리기업의 MDB사업 수주현황 및 성공사례 (20분)<br>- (KOTRA) 우리기업의 수주 성공비결 등 (20분) |
| 16:20-16:50 | <b>AIIB-국내기관 간 라운드테이블</b><br>- 국내기관 의견 청취 및 Q&A 등 (30분)  |

## □ 주요 내용

- AIIB 개요

- 2016년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두며 설립 이후, 초기단계를 지나 성장기 초기에 진입한 상태로 아시아지역 인프라 개발 및 금융에 초점을 맞춰 매년 50~100억불의 투자용자를 진행하고 있음. 현재까지 총 약 241억불의 119개 사업을 승인했고,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AAA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동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
- 현재 약 103개국 이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자본금 1천억불을 보유하고 있음(지역내 회원 지분 비중이 75%) 한국은 3.86% 지분 보유로 중국, 인도, 러시아, 독일에 이어 5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음. 현재 약 20여 명의 한국인이 근무 중에 있음
- 보통 AIIB와 일대일로 등 중국을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, AIIB는 103개국 이 회원국으로 있는 아시아 인프라 섹터에 집중지원하는 국제기구·MDB로 한 국가(중국)의 정책에 좌우되는 기관이 아니며, 모든 사업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함
- 중국 내 투자되는 사업은 미미한 수준이며, 국제기준에 맞춰 입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편중되는 부분은 없음

## ○ 발표 주요 내용

-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60%, GDP의 30%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우리 정부는 신남방 정책으로 아시아지역 진출 및 교류 확대를 추진 중임.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 등 능동적인 금융정책 추진을 통한 인프라 건설사업 참여 확대를 추진해야함
-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AIIB는 ①그린 인프라(Green Infrastructure), ②사회 인프라(Social Infrastructure)의 확장, ③민간자본 유치, ④지역협력 및 연결성, ⑤기술기반 인프라 등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선정
-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대응,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을 제고, 인프라 갭 격차 완화 등을 주목적으로 세계의 아시아와의 연계성 확대 및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이 목표
- AIIB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부터 AIIB

와 협업하는 것이 유리함

- 우리기업은 65개국 140개사 638건 165억불의 MDB재원 사업을 수주했고, 주로 ADB(68%), WBG(17%) 사업, 아시아지역(81%) 사업 수주에 집중되어 있음. AIIB 재원 사업은 5건, 47백만불 수주에 불과
- LS전선 컨소시엄의 AIIB재원의 오만 광통신망 개발 사업은 입찰부터 계약까지 약 8개월 소요로 빠르게 추진된 사례로 오만 사업을 통해 주변 GCC국가로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음

#### ○ AIIB-국내기관 간 라운드테이블

- AIIB 설립 초기에는 타 MDB와 Co-Financing으로 역량을 키워나가며,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단독 차관을 늘려나가고 있음. 현재 누적으로보면 5:5의 비율로 유지되고 있으며, 앞으로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향후에도 5:5 정도의 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
- AIIB는 아시아 지역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이며, 아프리카, 남미 등 Non-Regional 국가는 매년 총 승인금액의 최대 15%까지만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고, 아시아와의 무역 연결성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업승인이 가능함
- 최근 아르헨티나, 브라질 등 남미 국가가 멤버로 가입했고, 에콰도르 사업이 승인되는 등 남미쪽으로 사업이 확장될 계획임
- 민간부문의 투자가 인프라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참여 비율을 늘려가면서 협조융자는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되며, 공공:민간의 비율을 2030년까지 5:5로 맞추기 위해 앞으로 민간부문 사업에 집중할 계획임

#### □ 향후 계획

- AIIB와의 네트워크 유지·강화, AIIB 사업 참여희망기업 상담 및 진출 지원에 활용 등. 끝.

- 정책지원센터 -